

## 광주 여성들 삶 고단해졌다

### 일하는 여성가장 7년새 2만7천명 ↑ 월급여 115만원... 남성의 58% 수준

IMF이후인 지난 2000년부터 광주지역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여성 가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급여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광주지역 여성들이 어느 지역보다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

는 광주·전남 여성의 삶'에 따르면 올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의 여성 가구주는 11만1천978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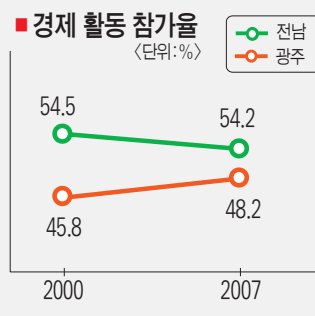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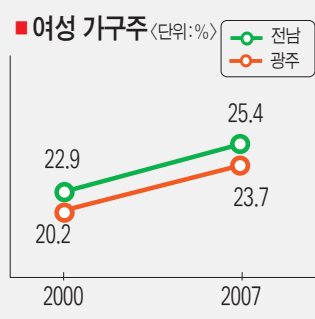
이는 2000년(8만4천444명)에 비해 32.6%(2만7천534명) 늘어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불황,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전체 가정에서 '여성 가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 광주의 '여성 가장' 비중은 전체 가구(47만3천34명)의 23.7% 수준으로, 지난 7년간 2.5%포인트 높아졌다.

고학력과 여성 가구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산

업 전진'에 뛰어드는 전체 여성들의 비율도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현재 광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5%로, 2000년(45.8%)보다 2.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광주는 여성 취업자의 급여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광주 여성 취업자의 월 급여는 115만1천원으로 전국 여성 평균(136만2천원)의 8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이는 광주 남성들이 받는 평균 임금(197만3천원)의 58.3% 수준이어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희기자 choice@



무안공항은 첫 날 관광객 일본인 관광단 93명이 26일 무안국제공항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공항 개항 이후 전세기를 타고 첫 입국한 이들은 3백4일동안 보성다원, 낙안읍성 등 전남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예정이다. /무안=이명주기자 mjna@

## 'BBK 특검' 각의 통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추가조각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발표될 'BBK 특검'의 수사 결과는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추가조각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와 이 후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국민적 의혹 해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과 40여 일 동안의 수사를 거쳐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 "민생경제·교육"

### 추 당선자, 인수위 활동 방향 제시

#### 인수위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7개 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1개 특위 위원장과 산하 태스크포스팀장, 각 분야 자문위원, 당선자 비서진 등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5·6면>

인수위는 이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관식을 갖고 27일엔 이 위원장과 주요 인수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발족하는 등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선 5년간의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고 교육문제다"며 인수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수행할 인수위원장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감독원이 공동 임명됐다. 특히 부위원장은 인수위 부위원장인 김형오 의원과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을 공동 선임했다.

특위 산하 6개 태스크포스팀은 박재완 의원(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투자유치), 허중수 경북대 교수(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한반도대운하), 강현욱 전 전북지사(새만금), 민동필 서울대교수(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맡게 됐다.

인수위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총괄) 행정규 의원 ▲정부 진수희 의원 ▲외교·통일·안보 박진 의원 ▲법무·행정 정동기 전 법무차관 ▲경제1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경제2 최경환 의원 ▲사회·교육·문화 이주호 의원 등이 각각 기용됐다.

각 분과별 인수위원으로는 ▲박형준 의원·곽승준 고려대 교수(기획조정) ▲남주홍 경기대 교수(정부) ▲현인택 고려대 교수·홍두승 서울대 교수(외교·통일·안보) ▲이달곤 서울대 교수(법무·행정) ▲백용호 이대 교수·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1) ▲홍문표 의원·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경제2) ▲김대식 동서대 교수·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사회·교육·문화)이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 국민신공공정책재안센터 간사는 이상목 시민단체 활동가가 담당하게 된다.

또 전남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임태희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각각 임명된 데 이어 정두언 의원이 비서실 보좌역에 선임돼 이명박 정권 탄생까지 '리베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서실 행정실장에는 백성운 전 경기부지사가 기용됐으며 메시지·공보팀장에는 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 총괄팀장엔 박영준 전 선대위 네트워크 팀장, 기획팀장엔 권택기 전 선대위 스키팀장 등이 임명됐다.

이 당선자 인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2명이다. 2002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 인원(247명)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복지'·전남 '해양' 힘 쏟는다

### 시·도 내년 역점 사업

광주시는 내년에 노인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복지 선도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新)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투자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 내년부터 3년간 1천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전남을 세계 5대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6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가 소비도시에서 생산·수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와 신(新)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또 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전자금융산업과 가전로

봇산업 육성, 금거래소 유치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광주만들기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에는 투자유치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해양영역으로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가 밝힌 투자유치 전략은 ▲총력투자유치 체제 가동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미래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 ▲과학기술 R&D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박 지사는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전남을 세계 5대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1062220-0541

